

박찬구 회장,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

석유화학 경영정상화가 더 중요 ... 연말 채권단 자율협약 졸업 목표도

박찬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찬구 회장은 2월9일 여수 BR(Butadiene Rubber) 제2공장 준공식에서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금호타이어는 선진계서 세우신 회사여서 애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호타이어 주식수가 얼마 되지 않고 석유화학 부문의 경영정상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예수기간(6개월)이 끝나면 전량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1.5% 정도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8월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감자로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으며, 현재 금호타이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자가 경영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09>